

“국민건강관리, 제도적



그는 국민 건강과
보건 담당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현식적으로 일해 왔다.

『국민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확고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상북도 보건과 孫浩翼 보건과장을 만나면서 들을 수 있었던 첫마디였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62년에 보건계에 투신한 그는 지금까지 국민 건강과 보건 담당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현신적으로 일해 왔던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 만큼 그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 보건의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미 꽤 오래 전부터, 국민 건강 관리에 관한 한 평생동안 모든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강관리사업이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건협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건협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도 잊지 않았다.

정착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경상북도 보건과

孫浩翼 과장

그는 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보건 문제의 하나로, 의료인의 적절한 배치를 들기도 한다.

『현재 저희 경상북도 시·군에는 총 228개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 보건지소가 도민 건강관리 측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볼 때, 의료담당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대부분의 지소에는 간호사 대신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더 책임감 있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는 또, 『그리고, 더불어서 의료인의 건강문제, 복지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지면 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겁니다.』라며, 보건 담당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요즘의 상황을 안타까워 하기도…….

孫과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관련자들의 모임을 주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일선 보건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

이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인지 주위에서 그를 신념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그 외에도 노인건강진단, 농촌주민 건강진단 등 그가 국민보건에 관해 관심을 가진 분야는 수도 없이 많은 듯 했다.

『어느 일이든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 해결함으로써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의식이지요.』

‘32년 경북 경산에서 출생한 孫과장은 현재 약국을 경영하는 김의목 여사와의 사이에 3남을 두고 있는데 장남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재학시 고시에 합격해 현재는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있으며, 2남은 미 텍사스주립 오스틴대에서 유전공학을 3남은 서울법대 재학중군에 입대해 현재 공군에 복무중이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며 이야기를 맺었다.

『사람은 누구나 분수를 알고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양보하는 마음 자세로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